

이 아닌것 卽 資料를 蒐集하여 議員들 앞
에 積極의으로 提供하는 奉仕야말로 참다
운 國會圖書館의 奉仕가 될것이다. 그런
點에서 國會圖書館은 物的施設도 必要하
지만 尤大하고 有能한 人的施設 이것이
國會圖書館의 運命을 左右하는 關鍵이라
고 力說하고 싶은 것이다. 이에 關하여는
現在 民議院事務處에 法制調查局이 있는데
同局下에 二課가 있고 其中 一課가 法制
調査課이라 이課에서 現在하고 있는 職務
의 一部는 立法參考資料의 提供이다. 筆
者는 過去 이 法制調査課에서 三年餘 勤
務한바있지만 여기에서 나가는 資料가 立
法活動에 直接間接으로 參考가되는 것을
볼때 議員들 여러분이 閱覽席에 나와서
資料를 뒤적어리고 讀書를 하는것 보다도
그以上 痛快함을 禁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立法調査機構가 現在の
國會圖書館에는 缺如되어 있으며 法制調
查局의 그것도 制度的으로나 實際的으로
充分히 確立된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圖

書館施設이 擴充될때까지는 國會議員 여
러분自身들이 施設不足인 圖書館이나
積極의으로 利用하는 道理밖에 없다. 그
러나 圖書館에 나타나는 議員數는 極少數
이다. 大綱의 事情은 이렇하다. 結論의으
로 말하면 國會議員과 讀書라고하면 密接
不可分의 因緣이 있는듯 하지만 圖書館과
는 거의 無緣狀態에 있는 實情이니 아마
讀書는 딴 곳에서들 하시는듯하다. 그러
나 그런분들 中에서는 圖書館無用打승도
들올수 있는데 自身이 利用하지 않는 圖
書館이라고해서 없앨 必要까지 있어야하
는지는 잘모르겠다. 그런가하면 反面에는
學生以上으로 꾸준히 工夫하는 議員들이
있는데 언제나 마음 든든하다. 바람과 달
이 같이 맑은 燈火可親의 季單, 더구나
讀書週間을 맞이할때면 議員閱覽席이 단
한번단이라도 滿員이 채웠으면하는 생각
도하여 본다.

(筆者 國會圖書館圖書課長)

銀行員과 讀書

李 俊 永

— 책이야 말로 우리들의
마지막 벗이며 이들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우리들이 늙는다
맞하지도 않는다 —

<에밀·파게>

現代社會가 發展됨에 따라 모든 社會的
領域은 多樣性을 띠게 되고 職業도 多岐
的으로 分業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分

화된 職業別에 따라 흔히 人間을, 固有名詞
化하고 그 職業的 機能과 性格에 따라 人
間型을 判斷하려는 傾向이 慣習化되어 버
렸다. 말하자면 「銀行員」이라는 稱號이
붙은 人間도 그 等屬의 하나이며 세상 사
람들이 銀行員을 가리켜 꼼꼼하다느니 打
算的이라느니 골셋님이라느니 하여 一律
的으로 規定지우는 것도 銀行業務自體가
緻密正確性和 打算性을 要求하기 때문이
다. 이런 꼼꼼쟁이 打算家 골셋님들은 都

是 어떤 傾向으로 讀書을 하고 있다 世人에게는 或是 關心거리로 되어 질런지도 모른다.

모든 職業人이 그러하듯이 銀行員도 「銀行員」이기 前에 于先 入間中の 한사람이다. 何等 市井人과 다를 바 없는 通俗的인 人間이며 市民인 것이다. 人間은 元來 功利的이니 하지만 相關關係에 설 때는 極 相對的이며 反作用的이다. 이것을 職業과 聯關해 볼때 特히 顯著하다. 名醫가 술을 잘하는가 하면 理工學徒들은 意外에도 古典樂이나 輕音樂을 좋아한다. 하루의 大部分을 한가지 일에 沒沒하면 自然 그 相對的인 것을 永하는 反作用的 姿勢가 人間生理속에 隱然히 潛在되 가는 모양이다.

노상 돈배미에 파문여 畫中之餅格인 남의 돈배판 물이거나 하찮은 몇 錢 몇 厘까지 正確히 計算해내야 하는 銀行員은 그 反作用으로 무엇을 永하는 것일까.

언젠가 行友誌에서 양계에트로 「貴下의 趣味」를 물은적이 있었다. 그 應答의 大部分이 讀書 아니면 映畫라 해서 實은 銀行員이 그처럼 讀書族인줄은 미처 몰랐었다. 따는 銀行에는 많은 書籍商이 드나들고 月賦制에 割引까지 해서 各種 書籍 特히 全集豫約者를 募集하러 다니느니만 적지않은 購得者를 얻은 모양이다. 그러나 그 購得이 眞實로 讀書를 爲한 것인지 단지 裝飾用에 不過한 것인지는 事實疑問이다. 나 自身도 그 뽐의 물결에 타서 一連의 全集을 사들이기는 했지만 아직 錢장을 펼쳐, 본것은 하나도 없음을 率直히 告白한다.

或自蔑的인 말이 될런지도 모르지만 그 趣味라는 讀書가 한낱 文學少女의 感傷에서 온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眞實로

讀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讀書을 한다」는 自體를 趣味로 하는지도 모른다. 그 可憐을 말해 보리라. <에밀·파게(Emile Faget)>는 讀書의 敵을 指摘하기를 讀書를 妨害하는 生活周邊 即 科學的 研究行動의 生活運動, 娛樂 등이 아니라 잘 읽는 것 有用하게 보람 있게 愉快하게 읽는 것을 妨害하는 氣質 或은 傾向 習慣같은 것 것이라든 매우 高踏的인 말을 했다. 그러나 나는 後者보다 오히려 前者가 우리에게 더욱 合當한 말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現代의 職業人으로서는 이 時代가 讀書家에 알맞는 <그늘에서의 生活>에 알맞이 않는 生活樣式으로 變遷되었기 때문이다. 책 한권을 읽기 위해서 몇일씩이나 <그늘속>에 들어앉아 있을 時間을 享有한 사람은 드물다. 그 보다는 映畫館이나 郊外로나 나간다든지 대포를 한잔 한다든지 髓流를 친다든지 해서 <레크레이션>을 오히려 즐겨찾는 것이다. 職業的 業務에 온 神經을 集中하는 職業人은 自然 反作用的으로 濶達하고 精神的 緊張을 풀 수 있는 어떤 愉快한 行動을 渴望하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娛樂雜誌나 輕快한 小說 따위를 읽는 程度의 讀書를 趣味로 한다는 것으로 解釋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眞實한 意味에서 讀書를 사랑한다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勿論 餘暇를 利用해서 業務에 必要한 讀書라든지 敎養을 쌓기 위한 讀書에 眞摯한 努力을 보이는 職業人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平凡하게 銀行員과 讀書라 할때 아니 모든 職業人이 讀書를 즐긴다 할때 그것은 하나의 <레크레이션>의 性格이 濃厚하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如何間에 우리 周邊에서 가장 妥當하고 또 어디서이든지 좋은 벗이 될 수

있는 것은 亦是 讀書이다.

出退勤時 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銀行員을 볼때 讀書는——娛樂에서든 研究에서든——아직 銀行員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호뜻한 體溫이 느껴지며 그러는 限銀行員의 生活에는 潤氣가 가지지 않았다는

산 證據가 될것이다.

<에밀·파게>의 말대로 책들이야말로 우리들의——職業이 무엇이든 間에——마즈맛 벗이며 까닭에 우리는 孤獨하지 않은 것이다.

(筆者 韓國產業銀行圖書室勤務)

旅行과 讀書

郭 潤 爽

旅行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말안 들어도 一種의 鄉愁와도 같이 야릇한 느낌을 갖게한다. 아마도 이 “旅行”이란 語彙 속에 鄉愁의인 感情을 수주치게 하는 어떤 要素라도 內包되어 있음일까? 아무튼 즐거운것만 같다. 別로 旅行을 하지않는(못하는) 立場에서 보는 하나의 憧憬은 아닐까 다 旅行을 한다는것은 언제과 관에 박은 듯한 日常生活 特히나 “싸라리멘”으로서는 그 生活에서 오는 모든 拘束에 一時的 이나마 벗어나 새로운 氣分과 感情으로 完全히 새로운 環境속으로 파고들어 新鮮한 興奮과 神秘로운 刺戟을 느끼며 自然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것은 “레크레이손”치곤 얼마나 高尚하며 즐거운 것이라! 가령 都市에서 시골로 旅行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거기서 山의 아름다움과 맑은 시냇물소리나 달과 별의 아름다움을 볼것이다. 이것은 都市에서도 日常生活에서 바라보던 그것들과 別로 差異될것은 없것만 平常時엔 아무런 感興도 느끼지 못한것이 旅行에서 보는것들은 平凡한것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끼며 기뻐하게 되는것은 분명히 生活의 시달림에서 벗어나서 모든것을 虛心摺換한 눈으로 바

라보게 되는 까닭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自己가 보고 듣는것에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깨닫는 能力을 지니고 있으며도 不拘하고 제때로 느껴보지 못하는것은 各自가 그날 그날에 當面하는 事件들을 處理하기에 만도 바쁜 까닭일까? 우리의 生活環境에는 너무나 外的인 障害가 많이 作用하는 탓이리라 이러한 環境에서 뛰어나와 가지 가지 未知의 世界를 헤치고 새로운 知識과 새로운 思想을 吸收하며 아직 살아보지 못한 人生의 心的 經驗을 맛보며 人生意慾을 도꾸어 새로운 “삶”에 積極的인 行動을 促求하는 것이 그 얼마나 重大한 問題이라! 意義있는 人生을 어떻게 展開하느냐? 生活에서 오는 悲喜와 不滿과 苦悶에서 逃避하여 安全地球로 이끄러 주는것은 旅行도 그렇거니와 案內役은 아무래도 書籍이 큰 役割을 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讀書란 旅行에 못지않게 즐거운 것이며 우리 生活속의 한 行事이고 全혀 別個의 世界인 것이다. 손끝으로 제쳐 넘기는 “페이지”속에 展開되는 讀書의 世界는 순식간에 煩雜한 일을 잊혀주며 따라서 心